

이긴자 일대기 [22]

이기고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지난호 소제목 <사업을 시작하다>에 담긴 주요 내용 요약

◎**사업의 시작**: 조희성님은 종로5가에 가게를 얻어 신앙촌 콜라사이다를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음료에 시커먼 것이 뚱뚱 뜨기 때문에 거절당하지만, 끈기 있게 설득하여 용산 중고등학교에 가는 길목 모퉁이 거북당 제과점을 시작으로 청량리를 거쳐서 마포 쪽으로 가서 마포일대에 제과점이 전부 다 신앙촌 콜라사이다를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과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조희성님의 단골이 되었고 서울 시내 곳곳에 음료를 납품하는 데 성공합니다.

◎**칠성사이다와의 경쟁**: 신앙촌 콜라사이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경쟁사인 칠성사이다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칠성사이다 공장 사장은 이 조희성님에게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칠성사이다 공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신앙심과 거절**: 조희성님은 칠성사이다 사장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신앙촌의 물건이라야 팔지, 칠성사이다 콜라를 팔 수가 없다”고 말하며, “치옥 간다”는 독특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이는 일곱째 천사의 사업 동기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행**: 조희성님은 자신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돕습니다. 그는 국민학교 동창을 칠성사이다 공장 감독관으로 취직시켜주고,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는 이처럼 시골 고향에 있던 여러 청년들을 서울로 불러올려 공부를 시키는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업 성공담을 넘어, 신념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돕는 그의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김포 고향에서 농사짓던 친구에게 앞길을 열어준다

일곱째 천사는 제과점만 하고 다방은 칠성에 양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일곱째 천사는 칠성 측에, “나는 별로 실력이 없고 내 친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며 친구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 병찬’이라는 친구인데 일곱째 천사가 중학시절 고향을 하면서도 세 학생의 학비를 대주며 공부를 시켰던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곱째 천사와 같은 김포 고향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께서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여 친구에게 “자네,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아?” 물으니, 그 친구는 “취직만 된다면 하지.”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소개로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직이 되는 당일로 곧바로 공장관리자의 높은 직책을 맡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친구가 중학교만 나온고로, 일곱째 천사가 직접 친구를 데리고 고등학교 교장을 찾아뵙고, “이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배우고자하는 열의가 강해서 고등학교 교과를 마치고자 하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니, 교장 선생님이 쾌히 승낙하여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야간고등학교를 마치고 스스로 대학까지 야학을 해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일곱째 천사가 구세주 이긴자가 되어서 영생의 역사를 하실 때, 남모르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서울시내에서 신앙촌 콜라 사업을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소사 신앙촌에서 예배도 못 보게 하는 멸시전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최수영 전도사가 남대문 제단에 계실 때는 남대문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으며 중부 제단으로 발령을 받고 가면 중부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주지 않는데 최수영 전도사는 일곱째 천사를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추후도 욕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로 일관했으며 틈만 있으면 기울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늘 은혜 창과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무소중하기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 소사 신앙촌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또 중부제단까지 걸어가곤 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걸어서 그렇게 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를 타고 온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중부제단에서 세검정 제단으로 이동되어 갔을 때부터, 일곱째 천사는 새벽기도를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하고 경쟁을 하면서 달리지만 항상 버스를 제치고 달렸고 다른 차한테 뒤지거나 저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새벽녘에 차가 뜰해서 그렇지 지금처럼 차가 많았으면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덕소 쪽에 가다가 다리 난간에 부딪치어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한 그 다음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back)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고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도 사고를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일곱째 천사는 속력을 있는 대로 놓은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세검정 전도관에서 도봉동 전도관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봉동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100% 밟고 달렸고 자전거를 타고 100% 밟고 달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따라 났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버스를 따라 놓을 정도로 밟았으며 매사에 이렇게 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도 지고는 못사는 성품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살이를 할 때 조그마한 것을 지게 되면 큰 것도 지게 된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곤고하신 사정과 감사함의 은혜가 사무쳐 눈물이 한없이 쏟아짐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알고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눈물이 흐르는 고로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항상 버스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수까지도 “필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사

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우세요.”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곤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곤고하신 사정과 감사함의 은혜가 사무쳐 뺨골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근처 다방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손님이 기다립니다.”하고 다방 레지가 문을 두드려서 나오면 “아니, 또 이 아저씨네.....” 하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또 다른 다방 화장실로 옮겨가서 울었는데, 들어갔던 다방에 가면 “이 아저씨 또 온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대문로 중구 필동을 통하여 남산으로 올라가 숲이 많이 우거져 인기척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다가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밤10시 또는 12시에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시절이었던고로 어쩔 수 없이 남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이 나 되어서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늘 울고 다녔던 탓에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옛날의 모습과 다를 정도였으며, 눈물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는 실제로 피가 섞인 눈물이 나왔습니다. 흔히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일곱째 천사는 실제로 피눈물을 흘려 본 사람입니다.

경인국도의 길은 일곱째 천사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단에 계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라!

Pray with strength in your belly!

이긴자가 걸여온 길, 이 사람이 은혜받던 비결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You must pay attention to the path the Victor Christ has walked and the secret by which he received grace.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길이 되고, 영생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That is the very way for you to receive grace and to enter the path of eternal life.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를 했다.
When praying, this person always prayed with strength in the lower belly.

기도를 할 때에는 눈을 감는 법은 없고, 항상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눈에다 새기며, 기도를 했다.
During prayer, he never closed his eyes; he always kept them open, looking at God, engraving God's face in his eyes as he prayed.

이 사람은 도통 말이 없었다.
This person was generally a man of few words.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생활이 기도가 없는 사람이다.
A person who talks a lot is one whose life lacks prayer.

기도 생활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새가 없다.
One who lives a life of prayer has no time to speak.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과 말할 틈이 없다.
Because he is conversing with God, he has no chance to talk with others.

그래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했던 것이다.
That is why it was said to put a bridle on your mouth.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해야지 세상 죄인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You must speak only with God and not waste words with sinners of the world.*

30여 년 동안 새벽제단에 빠지지 않았고 하루도 전도를 안해 본 날이 없어

집은 소사 신앙촌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발발일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온양 정 장로님의 배려로 콜라장사라도 하게 되었으나 그것마저도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모님께 서 옥중에서 나오신 후 소사신앙촌에서 사업을 벌여 놓은 공장을 폐쇄하고 이천년성(해와 이긴자의 상징)이 되는 덕소신앙촌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콜라 사이다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게 되어 그 동안에 힘들여 개척한 판매망도 거래쳐도 소용이 없게 되어 할 수 없이 직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콜라 사이다장사를 그만둔 뒤, 일곱째 천사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찾고 있을 때, 최수영 전도사의 소개로 강남 영동에 나가 고등학교 3학년생 열 명 가량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이 모두 서울대학교에 합격되어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소문을 듣고 재벌 자녀의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자기네 자녀를 책임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산국민학교 앞에 방을 얻고 을지로 2가 2층에 과외실을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가르치다보니 학생들이 늘어나서 중무로 3가 등 여러 곳에서 과외지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으며 그 돈으로 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전도관 교인들 모두가 ‘조 중위는 마귀’라 하며 반목하고 질시했지만 최수영 전도사만이 일곱째 천사를 받아 주

면서 예배보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일곱째 천사는 최수영 전도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중부제단에 있으면 일곱째 천사도 중부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고 남대문지관에 있을 때는 남대문지관, 신림동에 전보 발령되면 신림동지관으로, 그 밖에 세검정지관과 도봉동지관 등 몇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도 새벽예배에 매일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새벽기도를 가르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며 그런데도 대개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나 제단 안이 텅 비어도 혼자 남아서 아침이 될 때까지 목을 놓고 영영 울며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30여 년 동안 새벽제단에 빠져본 사실이 없으며 하루도 전도를 안해 본 날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다리 난간을 많이 받아 개울로 나가떨어지는 등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으며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를 보내주시는 신앙체험

일곱째 천사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여 부흥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요일 예배를 다녀갈 때마다 연보대 주머니가 두둑한 것을 본 최수영 전도사는 일곱째 천사가 연보를 많이 하는 줄 아는 고로 많은 전도관 식구들이 ‘조 중위는

마귀’라는 소문이 있어도 늘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집과 가까운 제단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일곱째 천사를 받아주지 않아 갈 수가 없었으므로, 최수영 전도사가 있는 곳만 나가게 된 일곱째 천사는 최수영 전도사와 밤을 새우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향취가 나고 생수연결이 되어 일곱째 천사는 ‘최 전도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연결되어 너무 좋습니다. 최 전도사님께서서는 은혜가 충만한가 봅니다.’ 하며 최 전도사의 신앙을 높이면서 늘 자신의 은혜체험을 숨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십의 십조를 바치는 생활을 하다

그리고 십의 구조를 바쳤다는 영모님 설교 말씀에 일곱째 천사는 십의 십조를 바치는 생활을 했으므로 항상 돈이 없는 상태였으며 때로는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머니의 돈을 몽땅 털어서 헌금을 하고 나오면 차비도 없는고로 제1한강교로 해서 노랑진을 거쳐 신길동을 지나 영등포까지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다음 주에도 차비도 안 남기고 몽땅 헌금을 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걸어가니까 어떤 트럭이 옆에 와서 차를 딱 세우고 “아저씨, 어디 가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등포까지 갑니다.”하니 “이 차가 영등포를 거쳐 인천까지 갑니다. 타세요.”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하고 사양해도

자꾸 강권을 하는고로 그 트럭을 타니 집에까지 태워다주고 인천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연히 운전사가 태워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 다 연보대에 털어 넣고 빈털터리로 걸어서 갈려고 내려오니 이번에는 까만 세단차가 일곱째 천사 옆에 와 딱 서면서 “선생님, 타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타고 갈 차비도 없습니다.”
“돈 안 받아요.”
“나는 영등포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이 차가 영등포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차종과 운전수가 다르게 나타나서 두 번, 세 번, 네 번 태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차를 보내주셨던 까닭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함께 더욱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점점 더 두터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주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항상 이끌여 주시고 동행해주셨던 것입니다. 일 년이 년이 아니요 삼십 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에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완성의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한 생활이 완성의 이긴자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